



KIA 라우어 (KIA 타이거즈 제공)

“나는 ‘우승 청부사’...준비는 끝났다”

‘기호지세’ KIA, 한국시리즈 3차전 ‘필승 선발’ 라우어 투입

“지난맞대결 부진 있었다...1,2차전 압승 자신감 반드시 승리” KIA 타선, 삼성 선발 레이스 상대 ‘3할 팀타율·홈런 4개’ 압도



KIA 타이거즈가 ‘우승 청부사’ 라우어를 앞세워 3차전 승리에 도전한다. KIA는 2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과 한국시리즈 3차전을 갖는다. 앞서 KIA는 홈에서 1,2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우승을 향한 중요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제 남은 2승만 더 챙기면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12번째 왕좌에 오르게 된다.

2패를 당한 삼성은 홈에서 타선의 장점인 장타력을 앞세워 대반격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IA는 선발투수 라우어가 얼마나 마운드에서 잘 버텨주느냐가 승부의 관건으로 예상된다. KIA는 올해를 KS 우승 적기로 판단하고 라우어 영입을 추진했다. 다만, 이번 리그 총 7경기에 등판한 라우어는 2승2패, 평균자책점 4.98을 기록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평범한 성적을 남겼다.

특히, 8월11일 단 1차례 맞붙은 삼성전에는 3.1이닝 동안 7피안타 3삼진 4실점으로 부진했다.

이에 맞서는 삼성 선발 레이스는 올 시즌 26경기 11승(4패), 평균자책점 3.81을 기록해 라우어보다 안정감이 더한다.

하지만, KIA타선은 올 시즌 레이스를 상대로 팀타율 0.365로 매우 높고, 홈런도 4개 나 때려냈다.

최형우가 1개의 홈런을 포함 4타수 3안타를 휘둘렀고, 나성범이 3타수 2안타 1홈런으로 레이스를 잘 공략했다.

김도영(4타수 1안타)과 최원준(5타수 1안타)도 홈런 1개씩 뽑아낸 바 있다.

라우어는 KBO 적응을 끝낸 만큼, 삼성과의 3차전에 정규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라우어는 “삼성이 KS에 올라오길 바랐다”며 “지금은 KBO리그 적응을 마쳤고, 타자들이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등판을 기다린 건 처음인데, 연습 경기 등을 통해 루틴을 지키며 감각을 유지했다”며 “우리 선수단은 자신감이 차 있다.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레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FC, 2년 연속 전 구단 상대 승리 ‘마지막 퍼즐’

인천잡고 잔류 굳힌다

광주FC가 2년 연속 전 구단 상대 승리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27일 오후 4시30분 인천 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을 상대로 K리그1 35R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최근 미드필더진의 활약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구축했다. 정호연을 필두로 박태준과 최경록이 활발한 스위칭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선보이며 특유의 빌드업 축구를 이끌고 있다.

지난 22일 조호르전 멀티골에 힘입어 6골로 ACLC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선 아시아와 스트라이커로 복귀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허율이 팀의 공격을 책임진다.

현재 승점 32점으로 K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는 인천은 최근 5경기 1무 4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존왕’이라는 별명답게 매 시즌 막바지에 살아났던 인천 상대로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인천은 상대 전적 1무 2패로 광주에 밀려 시즌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이다.

광주는 인천 상대로 승리를 거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구단 상대 승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광주FC 아시아가 지난 22일 열린 조호르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장애는 없다, 도전만 있다”...파리 패럴림픽 영웅들도 함께 뛰다



탁구 김영건, 탁구 김정길, 탁구 서수연, 보치아 강선희, 사격 이윤리, 배드민턴 유수영 (파리패럴림픽 사전공동취재단)

장애인 스포츠 대축제...김해서 ‘팡파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열린 6일 ‘스타트’

광주...탁구 김영건·서수연, 보치아 강선희, 조정 김세정 ‘금예약’ 전남...사격 이윤리, 축구 뇌성마비 4연패·여자식배구 2연패 도전

장애 체육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5-30일 김해서 등 경남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장애인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천806명이 참가해 31개 종목(선수부 28·동호인부 18)에서 열전을 펼친다.

특히 이번 장애인체전에는 파리 패럴림픽에서 감동을 안겼던 국가대표들이 총출동해 그 어느 대회보다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선수단은 안정적인 한자릿 수 진입을 목표로 양궁, 탁구 등 22개 종목에 303명이 출전한다.

파리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6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탁구 김영건(광주시청)과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한 탁구 서수연(광주시청), 탁구 동메

달리스트 박진철·김정길(이상 광주시청)이 선봉에 선다.

보치아 태극마크를 달고 생애 첫 패럴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강선희(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는 금메달을 예약했다. 전통 효자종목 사격에서는 박승우·박동안(광주시청), 김근수·임주현(광주시장애인체육회)이 무더기 금메달에 도전한다. 양궁 이화숙·윤태성·정진영(이상 광주시청)도 ‘금빛 시위’를 정조준한다.

파리 패럴림픽 조정에서 5위에 자리하며 아쉽게 메달을 놓친 김세정(광주시장애인조정연맹)은 금메달 1순위로 꼽힌다.

이밖에 육상 김지혜·김천천·서영길·김하은·방미주·이수연·문지수(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와 수영

정봉기·김민석(광주시장애인수영연맹)도 최상의 경기력으로 메달사냥에 나선다.

전남은 원정체전 역대 최고 성적 종합 8위를 목표로 양궁, 론볼, 축구 등 31개 전 종목에 원정 최대 규모인 7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파리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첫 메달 주인공인 사격 이윤리(완도군청)가 전남 선수단 금빛 질주에 앞장선다. 배드민턴 차세대 스타 유수영, 권완이(이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역도 유병상(순천시), 육상 이미옥(한전KPS)은 다관왕을 노린다.

이밖에 사이클 박솔기(한전KDN), 론볼 송명준(전남장애인체육회), 황동기(전남장애인체육회), 탁구 이장식(한전KDN), 김은희(전남장애인탁구협회), 육상 정강 황상준(한국농어촌공사)도 금메달이 유력하다.

단체 종목에서는 축구 뇌성마비 4연패, 여자 좌식배구와 골볼 남자는 지난해대회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한다. 지난 대회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한 카누, 배구팀은 금빛 도전에 나서며 축구, 골볼은 종목 종합 1위를 노리고 있다.

“빛고를 육상 꿈나무 조기 발굴”

제7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경기대회 오늘 개막

빛고를 꿈나무 선수 조기 발굴·육성 및 엘리트 선수 저변 확대를 위한 육상대회가 열린다.

광주시체육회는 2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7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체육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 지역 초·중학교 학생선수 400여명이 출전해 100m 등 54개 세부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광주시체육회는 대회를 통해 갈수록 줄어드는 엘리트 선수층을 확보하고 재능과 소질을 테스트 해보는 의미 있는 대회로 평가하고 매년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대회 기간 중 참가 선수는 물론 교사, 학부모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광주스포츠 과학연구원 등에서 간단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광주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밝은안과2병원에서는 눈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이루다에서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페이스페인팅, 아트폰션, 버블체험 등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전담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모든 운



사건은 지난해 열린 제6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대회 경기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동의 기본인 육상을 활성화해 엘리트 스포츠 저변을 넓히는게 목표”라며 “학생들이 이 대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선수가 배출되는 선순환은 물론 육상 육상 발전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

파리올림픽에서 전남을 빛낸 양궁 남수현(순천시청)과 복싱 임애지(화순군청)가 ‘2024년도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양궁 남수현과 복싱 임애지가 지난 23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8회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도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은 국내·외 각 분야에서 전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도민과 출향인사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관광·문화·체육 등 4개 분야에서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체육분야는 2021년 염해선(배구), 2022년 서창완(근대5종), 2023년 안세영(배드민턴)에 이어 2024년 남수현, 임애지까지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쁨을 누렸다.

남수현, 임애지는 “너무도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전남체육,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수감 소감을 밝혔다.



‘2024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수상한 남수현(왼쪽)과 임애지 (전남도체육회 제공)